

1711年 朝鮮通信使 服飾에 관한 研究

- 三使臣을 中心으로 -

이 자 연[†]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A Study on the Costume of Korean Envoys of the Chosun Dynasty in 1711 - Focused on the Three Envoys -

Ja-Yeon Lee[†]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3. 3. 25. 접수 : 2003. 7. 26.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stume of Korean envoys of the Chosun dynasty. The research results follow. The costume of three envoys including senior envoys and vice envoys is by, its different kinds, Gwandae, Jobok, Gongbok, and Pyongbok. According to the different purposes of occasions, these dresses were classified as the dress for ceremonies, the dress for banquets, and the dress for travel. For the ceremonial purpose, Gongbok and Jobok were mostly used. Gongbok was chosen when the envoys entered into the major cities or when they had ceremonies with the lord of the manor. The envoys wore Jobok for important ceremonies such as when receiving or presenting credentials or when entering into Chusima. For travel costume, Pyonbok of nobleman was used. The envoys wore Pyonbok during journey but they changed into Gongbok when they entered into the major cities such as Osaka or Kyoto in order to show their diplomatic etiquettes as representatives of the Chosun dynasty. And for the banquets, they wore Gongbok for official banquet and Pyongbok for private banquet. These findings of the different dress for different occasion indicate that there was a strict dress code according to the occasions and purposes.

Key words: gongbok(공복), gwandae(관대), jobok(조복), korean envoys(조선통신사), pyongbok(평복).

I. 序 言

朝鮮時代 朝鮮通信使의 訪日과 日本使臣들의 빈번한 往來는 당시 日本과 朝鮮과의 관계를 다채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朝·日 間의 友好往來의 역사에 주목할 만한 成果를 올렸다. 이러한 交流는 단순히

국가간의 支配者層 相互 間의 교류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領主나 儒學者 및 民間人들에게도 영향을 준 일대 文化行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朝鮮時代의 對日關係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朝鮮通信使를 중심으로 이들의 복식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당시 朝鮮과 日本의 服飾文化樣相과 服飾文化交流에 관한 資料

[†] 교신저자 E-mail : jylee@silla.ac.kr

로 活用하고자 한다.

本 研究을 위한 研究內容으로는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과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던 朝·日 間의 政治的 狀況과 通信使一行의 規模와 行路, 日程 等에 관하여 살펴보고, 通信使一行이 京城에서 출발하여 日本에서의 각종 儀式과 宴會 등에 참석한 후, 朝鮮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旅程과 服裝은 어떠한지 살펴봄, 이를 통하여 朝鮮時代의 服飾文化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朝鮮通信使의 服飾에 관하여는, 비교적 문헌과 그림으로 기록된 자료가 남아있는 1711年대의 朝鮮通信使를 對象으로 하여, 正使를 비롯한 三使의 복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朝鮮通信使의 服飾이 旅程에 따라 다른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通信使一行의 旅程에 따라 나타나는 복식을 문헌과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그림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화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활용한 자료는 기록과 대조하여 충실한 것을 선택하였다.

II. 政治的 狀況과 朝鮮通信使

1. 朝·日 間의 政治的 狀況

朝鮮時代 對日關係는 倭寇侵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으며, 일본의 諸 勢力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력도 倭寇禁壓을 위한 것이었다. 倭寇의 侵略이 가장 심하였던 시기는 高麗 末인 1350년부터 朝鮮 初期의 1408년까지로, 이 때는 王朝의 交替로 인하여 中央의 統治體系가 흔들리고 政治的 機能이 弱화되었기 때문에 그 廢頽로 인하여 倭寇의 侵入은 더욱 더 심하였다¹⁾. 이와 같은 극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고려는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왜구의 소굴을 직접 토벌하기도 하고, 일본의 세력가들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倭寇禁壓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선 초의 왜구 대책도 麗末의 양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지만, 양국의 국내

정세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왜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회유하여 평화적인 通交者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즉, 조선이 건국 후 점차 신홍왕조의 기틀을 닦아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가고, 일본도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의해 남북조통일이 이루어져 정세가 안정되자, 양국 모두가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갔다. 조선은 太祖 즉위 직후인, 1392년 11월 승려인 覺鑑를 아시카가 장군에게 파견하여 倭寇禁壓을 요청함으로써 倭寇禁止와 함께 피로인의 송환을 약속 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교섭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규슈(九州) 지방을 비롯한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등 조선과 근접한 지역의 중소 영주들이 보낸 사자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太祖 年間(1392-1398)에 使者의 명칭을 가지고 왕래한 예를 보아도 무려 28차례나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조선 측의 倭寇禁壓을 위한 다양한 노력, 즉 왜구침탈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대응과 朝鮮通信使를 파견하여 일본의 장군 세력이나 중소 영주 또는 지방 세력가들과의 외교적인 교섭, 투항자에 대한 식량과 관직수여 등의 귀화 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양국관계에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노략질을 하던 倭寇가 통상을 요구하는 興利倭人²⁾으로 변화되는 등 倭寇禁壓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특히, 通信使의 일본 파견은 朝·日 兩國의 통교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양국의 문화적인 교류 또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으로부터도 막부의 사행인 국왕사와 영주의 사행인 제주사 등을 포함한 일본사신들의 내왕이 빈번하여졌다. 이에 따라 太宗 7년(1407)에는 군사적 경제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浦를 한정하여 부산포와 내이포가 최초로 개항하게 되었으며³⁾, 世宗 8년에는 부산포와 내이포 외에 영포를 개항하여 무역하게 함으로써, 朝·日 間의 交易은 이 三浦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2. 朝鮮通信使

일본에 대한 交隣外交는 禁寇政策의 일환으로 취해진 懷柔政策으로, 禁寇交涉을 위하여 평화적인 사

1) 이 기간동안의 왜구의 침입은 364회에 달하였다.

2) 太祖實錄, 太祖 4年 12月 癸卯條.

3) 太宗實錄, 太宗 7年 7月 戊寅條.

절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을 通信使라고 하였다. 일본에 조선사절이 파견된 것은 1428년부터 1529년 임진왜란 전까지 약 7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다.

通信使一行은 남쪽의 대외관계를 보다 안정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修好와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고, 일본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두고자하는 목적에서 파견되었다. 通信使一行의 構成과 人員을 보면, 통례로 正使, 副使, 從使官 내지 書狀官 등이 있고, 이들이 三使가 되어 대표가 되며, 기타는 通事, 樂工, 醫員 등 수행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일행의 인원은 사절단의 종별과 성격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나, 대략 300~500명의 막대한 인원이었다. 1711년(肅宗 37년)에 파견된 7차 朝鮮通信使의 인원을 보면, 正使 1인, 副使 1인, 從使官 1인을 비롯하여 모두 48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正使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을 보면, 正使子弟軍官 2인을 비롯하여 軍官 5인, 製述官 1인 書記 1인 堂上譯官 2인 漢學上通事 1인, 押物通事 2인, 加定醫員 1인, 寫字官 1인 別破陳兼軍官 1인, 典樂 1인, 理馬 1인, 伴倘⁴⁾ 1인, 禮單直 1인, 馬上才⁵⁾ 1인, 廳直 1인, 盤纏次知 1인, 騎船將 1인, 都訓導 1인, 奴子 등 20인, 小童 7인, 小通事 4인, 使令 14명, 砲手 2명, 刀尺 2명, 都沙工 1인, 繚手 정수 각 1명, 格軍 56명, 卜船將 1인, 沙工 1인, 無上繚手 無上정수 각 1명, 格軍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제1船에 타고 일본을 향하여 떠난다. 제2선에는 副使 子弟軍官 2인, 軍官 5인 이하 正使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신분과 인원이 탑승을 하고, 제3선에는 從使官의 子弟軍官을 포함하여 正使 때와 비슷한 신분과 인원이 탑승을 하였으며, 도합 6선의 배를 타고 일본에 출항하였다.

파견된 正使의 品階를 보면 정3품에서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사이의 관직자가 임명되었고, 職位로 보면 전직자가 많고 또 大司成, 司成副應教, 舍人, 曲胥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로 文臣 중에서도 學者나 文章家 詩人 등이 많이 선임되었다. 1711년 通信使의 三使를 보면, 가장 우두머리인 正使에는 通政大夫 戶曹 參議 知製教 趙泰億, 副使는 通訓大夫 사복시정지제교 任守幹, 從使官으로는 通訓大夫 행

병조정랑 知製教 李邦彥이 通信使의 三使로 임명이 되었다. 이들 사절단은 사절의 任務에만 내용이 기록된 공식외교문서인 書契⁶⁾를 가지고 갔으며, 또 그 외에 別幅이란 物目으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다. 通信使一行의 旅程을 살펴보면, 京城에서 출발하여 釜山에 도착한 후, 永嘉를 위에서 海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기선 3척, 복선 3척을 타고 永嘉를 출발하였다. 通信使一行의 일본에서의 行程은 방일 년도에 따라 각각 달랐지만, 대체로 藍島를 거쳐 하관에서 새도 內海-大阪-京都-名古屋-江戶에 도착하였다. 江戶에서 돌아오는 길은 같은 往路를 이용하였는데, 이상의 길을 왕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인원은 약 500명의 通信使一行 이외에, 通信使를 수행하는 對馬藩主의 一行과 對馬島에서 외교사무를 막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윤번승 그리고 그 수하의 직원들 500명 및 선장과 일행의 짐을 운반하는 자 1000~2000명, 합하여 2000~3000명의 막대한 인원이었다.

III. 朝鮮通信使의 派節

1. 그림으로 표현된 朝鮮通信使

朝鮮通信使一行을 그린 그림에는 일본인이 그린 그림과 조선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 朝鮮通信使가 일본에 왕래할 때마다, 일본측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의 화가들은 다수의 감상적인 회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 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화가들이 朝鮮通信使를 주로 기록화로 많이 그렸다. 일본인 화가가 그린 朝鮮通信使에 관한 그림은 주로 使節團의 행렬을 그린 朝鮮使節大行列圖 인데, 형식은 두루마리, 병풍, 민속화 및 판화 등으로 되어있다. 두루마리의 그림은 조선의 正使, 副使, 製述官은 물론이고 조선과 일본의 주요 인물과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각종 색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 두루마리 그림은 길이 130미터에 4600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

4) 使臣이 自費로 데리고 가던 수행원.

5) 말 위에서 8가지 무예를 하는 사람인데, 이는 각 군문 馬軍 중에서 뽑아 시켰음.

6) 書契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정부로 발송되는 통신문으로, 使送貿易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다. 그림 속의 중요 인물에는 각각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배경을 그려 넣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림은 행렬 자체의 記錄畫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行列圖 두루마리는 아키토모(秋元)가의 소장품, 코노에(近衛)가의 소장본(京都), 소오(宗)가의 소장본(對馬島) 한국국립박물관 소장본, 그리고 두루마리로 병풍을 만든 것(東京)이었다. 그 중에서 아키토모가 소장품과 코노에가 소장의 그림이 1711년(肅宗 37년)때의 朝鮮通信使一行을 그린 그림이며⁷⁾, 1711년 正使로서 방일하였던 趙泰億의 초상화는 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趙泰億의 肖像畵는 정장한 正使가 무릎 위에 손을 마주 잡고 왼편을 향하여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의복의 무늬나 胸背, 帶 등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의복의 윤곽이나 紋樣의 선은 墨線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두루마리 그림들은 江戸時代의 유명한 카리노파의 화가들에게 집단으로 제작토록 명령하여 그 작품을 조선의 왕, 친왕가 영주들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들로, 그림들은 歷史의인 행사의 記錄畫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歷史의인 資料로서 評價되어야 할 작품이라 하겠다.

2. 通信使一行의 旅程과 服飾樣相

1711년에 訪日한 第8次 朝鮮通信使一行의 旅程을 보면⁸⁾, 正使 趙泰億을 중심으로 한 一行은 京城에서 출발하여 釜山에 도착한 후 對馬島 佐須浦 도착(7/5)- 對馬島 府中에 들어감(7/19)- 壹岐島(8/9)- 赤間關(8/29)- 大阪城(9/16)- 倭京(9/28)- 江戸에 入城(10/18)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은 같은 往路를 이용하였는데, 江戸를 출발(11/19)-大阪城 도착(12/9)-赤間關에 돌아옴(1/20)-對馬島에 回泊(2/9)-對馬島 府中을 떠남(2/18)- 左水營 南川에 還泊(1/25)-京城에 入城(3/9)하였다. 일정은 도합 2백 89일이 소요되었으며, 거리는 京城에서 釜山까지 陸路 1천1백 65리, 水路 3

천2백85리, 일본에서의 거리는 淀浦에서 江戸까지 陸路 1천3백80리, 水陸路 모두 5천 7백 45리의 먼 거리였다.

1) 京城에서 釜山(5월 15일-6월 6일)

通信使一行이 동래에 도착하여 國書를 맞이할 때에는 官門 5리 밖에 府使 이방언이 장막을 치고 國書를 맞이했는데, 國書를 龍亭子에 담고 儀仗을 갖추어 풍악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하였으며, 使臣은 冠帶를 갖추고 배행하여 客舍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한편, 京城을 출발하여 釜山까지의 여정동안 언급한 國書맞이 때의 것을 제외한 복식에 관한 1711년의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12차례의 通信使를 통하여 보았을 때, 申維翰의 『해유록』에 三使臣 이하 모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며, 승례문으로 나와 일행이 靑袍로 바꾸어 입었다¹⁰⁾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1617년의 通信使一行이 釜山에 머무는 동안 海神祭의 의식을 행할 때의 복식을 보면, 正使, 副使, 從使官 모두 冠帶를 입었으며¹¹⁾, 1682년의 通信使一行은 使臣以下 모두 公服¹²⁾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京城에서 釜山까지의 旅程동안에는 각 지역에서의 宴會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靑袍와 같은 平服을 착용하였을 것이며,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公服, 冠帶와 같은 관복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2) 對馬島 府中에 들어감

通信使一行이 對馬島 府中에 도착하였을 경우를 보면, 島主는 여러 차례 奉行을 보내 문안하였고, 그 후 島主 및 長老僧이 배를 타고 나와 通信使一行을 맞이하였다. 三行의 旗色, 槍劍, 六角, 籥鼓가 모두 말을 타고 선도하고 寫字官이 國書를 받들고 가는데, 使臣들은 朝服을 갖추고 교자에 앉아서 國本寺¹³⁾로 들어갔다¹⁴⁾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당

7) 金龍鮮 譯, 中村榮孝,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조선통신사(서울: 東湖書館, 1982), p. 162.

8) 任守幹, 海行總載(續)Ⅱ(서울: 삼성인쇄, 1977), pp. 151-152.

9) Ibid., p. 158.

10) 申維翰, 海行總載Ⅰ(서울: 삼성인쇄, 1977), p. 368.

11) 姜弘重, 海行總載Ⅲ(서울: 삼성인쇄, 1977), p. 174.

12) 洪禹載, 海行總載Ⅳ(서울: 삼성인쇄, 1977), p. 139. 金指南, 海行總載Ⅴ(서울: 삼성인쇄, 1977), p. 261.

13) 國本寺는 以圓庵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玄蘇의 顯堂이다.

14) 任守幹, op. cit., p. 168.

시 通信使의 行列을 그림으로 표현한 「正德元辛卯年朝鮮國之信使 登城行列」의 두루마리 그림에 나타난 복식의 樣相과 같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의 正使의 복식을 보면(그림1), 梁冠에 胸背가 부착된 흉단령을 입고 帶를 매었으며, 木靴을 신었다. 이 복장은 이후 1811년의 正使의 복장과도 같은데, 다만, 1811년의 것에는 여기에 홀을 들고 있는 점이 다르다. 通信使一行이 釜山을 떠나 對馬島로 가는 여정 동안의 차림에 관하여는 1711년의 通信使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1682년의 경우를 보면 三使臣 모두 貂皮 帽子和 비단 道袍를 착용하고, 堂上官 以下에서 畫員 畫記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道袍와 唐冠을 착용하였으며, 軍官은 戎服을 착용하였다¹⁵⁾고 한다. 또 1811년의 경우에는 臥龍冠에 鶴縵衣를 착용하고 승선하려고 하였다¹⁶⁾는 기록이 있다.

3) 對馬島 島主의 宴禮

일본에서의 通信使 接待을 위한 연회는 처음에 對馬島에서 下船宴이 있고, 江戶에 도착해서 別宴이 있으며, 對馬島에 돌아와서는 上船宴이 있다. 이러한 宴會는 규모가 비교적 큰 것들로서 대개 對馬島主¹⁷⁾의 집에서 베풀어졌다. 宴會當日에는 正使以下 모두 公服을 갖추어 입고, 軍악을 울리며 儀仗隊를 앞세우고 차례로 가마를 타고, 島主의 관사에 도착한다. 使臣이 內門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는데 奉行 외 여러 명이 문턱까지 나와 맞이하는데, 손님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자리잡고 앉는다. 높이 배열되어 있는 상과 탁자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그릇들은 모두 금, 은, 유리를 사용하여 초목이나 날짐승과 길짐승이 날아 움직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饌이 놓이면 먼저 九酌九味¹⁸⁾를 행한 후, 다시 밥을 내어



〈그림 1〉 正德元辛卯年朝鮮國之信使 登城行列 - 正使行列-

(출처: 朝日新聞社文化企劃局, 宗家記録と朝鮮通信使展, 朝日新聞社 1992, p.23)

바친다. 식사를 하고 歇廳으로 물러가 앉아 平常服으로 모두 갈아입은 후¹⁹⁾, 私宴에 참석한다. 그 사이에 상을 모두 치우고 여러 花盤으로 작은 상을 배설하며, 광대가 나와 흥을 돋구었다. 사신은 宴禮 時의 儀禮服으로서는 公服을 私宴에서는 平服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1711년의 경우에는 赤間, 大阪, 倭京, 尾張, 駿河의 다섯 곳에서 宴會가 베풀어졌는데, 돌아올 때는 역시 같았으나 赤間의 연회는 牛窓로 옮겨 베풀었다²⁰⁾. 한편, 1748년의 경우, 平服으로서 갓과 道袍로 갈아입었으며²¹⁾, 1764년에는 三使臣 모두 흉단령을 입고 宴禮에 참석하였다²²⁾가 私宴에서는 臥龍冠에 鶴縵衣를 착용하였다²³⁾.

15) 世宗大王記念事業會, 通文館誌 I(서울: 신홍인쇄사, 1998), 6권 p. 281.

16) 柳相弼, 楊麟植, 海行總載 X(서울: 삼성인쇄, 1977), p. 292.

17) 對馬島主는 1년은 對馬島에 있고, 1년은 江戶에 있는데 그 妻子가 江戶에 억류되어 있는 까닭에 江戶와 大阪城에도 또한 그의 집이 있다.

18) 酒宴에서 행하는 의식의 하나. 아홉 번 술을 부어 아홉 번 마시는 의식.

19) 任守幹, *op. cit.*, p. 172.

20) 민족문화추진회, 增正交隣志(서울: 코리아헤럴드, 1998), pp. 204-205.

21) 曹命采, 海行總載 X(서울: 삼성인쇄, 1977), p. 56.

22) 趙暉, 海行總載 VIII(서울: 삼성인쇄, 1977), p. 74.

23) *Ibid.*, p. 75.

4) 大阪入城과 宴禮

通信使一行이 對馬島를 떠난 후, 여러 도시를 지나 大阪城에 도착하여 館所로 향한다. 旗槍과 簾鼓로 선도한 뒤에 國書가 담긴 용정이 뒤를 잇고, 세 사신은 교자를 타고 뒤따랐다. 館所는 本願寺라는 사찰이었는데, 館伴을 비롯하여 江戸僧 등이 館所에서 通信使一行을 맞이하였다²⁴⁾. 大阪에 入城할 때의 通信使 복식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大阪에 머무는 동안, 關白의 명으로 숙궁연²⁵⁾이 베풀어지는데, 그 절차는 對馬島에서의 宴會와 거의 같다. 이때의 복장에 대하여 1711년의 기록을 보면, 使臣은 公服을 갖추고 島主와 館伴, 江戸橫目과 연회에 참석하였다²⁶⁾고 되어 있으며, 1748년의 通信使의 경우에는 단령을 착용하였다²⁷⁾. 宴會에 앞서 關白의 使臣이 國書를 전하는 의식이 있었다.

5) 倭京에 들어감

通信使一行이 大阪에서 출발하여 倭京에 들어갈 때에는 寶相寺에 이르러 公服으로 갈아입었다²⁸⁾는 기록이 있다. 館所에 도착하니 館伴이 문밖에서 맞이하였는데, 大阪에서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²⁹⁾. 大阪에서 倭京까지의 여정동안 使臣의 복장은 平服이었으며, 倭京 입성 시에 관복으로 갈아입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617년³⁰⁾, 1636년³¹⁾, 1655년³²⁾의 경우에는 세 사신 모두 冠帶를 착용하고 倭京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으며, 1719년³³⁾과 1764년³⁴⁾에는 세 사신이 흉단령을 착용하였다.

6) 江戸入城과 關白接見

通信使一行이 倭京을 출발하여 여러 도시를 거쳐 江戸에 도착하는데, 江戸의 길가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매우고, 樓上에서는 발을 걸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 찬란한 비단 옷차림은 사람의 눈을 현란시킬 정도였다고 한다³⁵⁾. 使臣은 公服을 갖추고 入城하였으며, 館伴, 지대관, 奉行 등이 일행을 영접하였다. 또, 關白이 重臣 2인을 보내서 通信使一行에게 문안을 드리게 하였는데, 이들이 도착하면 對馬島主가 맞이하여 들이고, 使臣은 公服을 입고 밖에서 迎送을 한다³⁶⁾.

通信使一行이 江戸에 도착하면 우선 임금의 명을 關白에게 전하는 날인 傳命日을 정하게 되는데, 이 날의 결정은 일본측에서 정하여 一行에게 알려준다. 그후, 對馬島主와 館伴 등이 儀註를 정하고 지형을 그려와서 節目을 의논하였다. 또한, 일본측에서는 傳命日의 하루 전에 通信使一行이 가지고 온 公, 私別幅의 물건을 가지고 갔으며, 당일이 되면 다시 행사를 위해 때를 알려준다. 당일에는 儀仗隊를 개설하여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清道旗가 맨 앞에 서고 巡視旗, 令旗가 그 다음이며, 旗를 든 사람은 걸어간다. 節鉞이 그 뒤를 따르고 轟, 大旗, 鼓吹가 그 다음을 따르며, 이들은 걸어간다. 그 다음에 使令이 걸어가고, 그 뒤를 小童이 말을 타고 따른다. 軍관은 兪복을 입고 선도하며, 龍亭이 그 다음이고, 使臣 以下는 公服을 입고 행렬을 따른다³⁷⁾. 三使臣이 國書를 받들어 軒을 지나 10여 보를 가서 東夾의 外堂으로 들어

24) 任守幹, *op. cit.*, pp. 193-194.

25) 洪萬載, *海行總載* Ⅶ(서울: 삼성인쇄, 1977), p. 126. 사신에 대한 접대는 건공과 숙공의 두 형태가 있는데, 건공은 일본측이 제공하는 찬거리와 양식을 받아 사행이 식사를 自辦하는 것이고, 숙공은 일본측이 식단을 마련하여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다.

26) 任守幹, *op. cit.*, p. 198.

27) 曹命采, *op. cit.*, p. 104.

28) 任守幹, *op. cit.*, p. 200.

29) *Ibid.*, p. 200.

30) 李景機, *海行總載* Ⅲ(서울: 삼성인쇄, 1977), p. 67.

31) 金世謙, *海行總載* Ⅳ(서울: 삼성인쇄, 1977), p. 74.

32) 南龍翼, *海行總載* Ⅴ(서울: 삼성인쇄, 1977), p. 490.

33) 申維翰, *op. cit.*, p. 498.

34) 趙暉, *op. cit.*, p. 159.

35) 任守幹, *op. cit.*, p. 209.

36) 1711년의 통신사 파견 시에는 大阪, 倭京, 駿河, 品川 등지에서 가고 올 때 모두 문안하였다.

37) 三使는 本國의 平儀에 앉으며 堂上은 왜국의 肩輿에 타고 堂下는 말을 탄다.

가서 북쪽 벽에 國書를 奉安하고, 三使는 북쪽을 향하여 줄지어 앉으면, 關白이 나와 앉은 후, 公禮, 酒禮(또는 茶禮)를 행하였다. 한편, 1748년의 경우, 세 사신 모두 烏紗帽에 紅袍를 갖추었으며³⁸⁾, 1764년의 使行 때에는 이때 鴻 단령을 착용하였다³⁹⁾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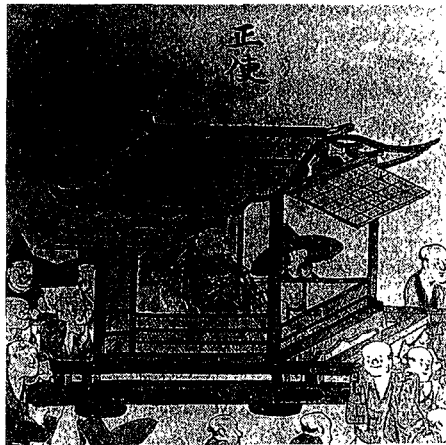
7) 江戸에서 돌아옴

「正徳元辛卯年朝鮮國之信使 歸路行列」에 의하면 일본인이 맨 교자에 타고 있는 正使는 鴻배가 달린 현녹색 단령을 입고 손에는 홀을 들고 있다(그림 2). 관모는 교자에 가려져 있어 거의 형태의 파악이 어려워 그 모양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같은 차림의 副使의 모습(그림 3), 그리고 正使 趙泰億의 肖像畵(그림 4)를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 관모로는 사모가 착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모에 鴻배가 달린 현녹색 단령의 양식은 常服으로 통용이 되나⁴⁰⁾, 外國使臣과의 접견 시 착용하는 公服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위에 언급한 양관, 鴻배가 달린 단령과는 달리, 당시 복식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착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여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IV. 朝鮮通信使 服飾의 分析

朝鮮通信使의 旅程 중 나타난 복식을 살펴본 결과, 旅程 동안 나타난 服飾은 冠帶, 朝服, 公服, 半服이 나타났다. 이들 의복은 그 용도에 따라 儀禮用, 宴會用, 旅行用 차림으로 대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우선, 儀禮用 服飾에 대하여 살펴보면, 通信使-行이 京城에서 釜山 東來府에 도착하여 國書를 맞이할 경우에는 冠帶를 착용하였다. 冠帶란 公服인 의관속대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단령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으나⁴¹⁾, 여기에서의 冠帶란 어떤 복식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동사록의 집필자이며, 副使의 자격으로 通信使 파견에 참가한 任守幹이 公服과 冠帶, 朝服을 구별하여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冠帶란 公服과 朝服을 제외한 복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通信使關聯 문헌에 기록된 冠帶의 명칭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12차례의 通信使 服飾을 통하여 보았을 때, 1682년



〈그림 2〉 正徳元辛卯年朝鮮國之信使 歸路行列 -正使行列- (출처: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編, こころの交流 朝鮮通信使,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 2001, p.23)



〈그림 3〉 正徳元辛卯年朝鮮國之信使 歸路行列 -副使行列- (출처: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編, 앞책, p.23)

38) 曹命采, *op. cit.*, p. 150.

39) 趙職, *op. cit.*, p. 189.

40) 유희경, 한국복식사(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81), pp. 322-331.

41)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서울: 민문庫, 1988), p. 56.



〈그림 4〉 正使 趙泰億 (출처: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編, 앞책, p.27)

의 通信使를 기점으로 그 전의 기록에는 朝服과 公服 등의 구체적인 복식의 언급이 없이 冠帶로 통일하여 기록이 되어있으나, 1682년 이후부터는 冠帶라는 복식용어는 쓰여지지 않고, 公服과 朝服 등 구체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있다. 다만, 1711년의 通信使 기록에는 冠帶와 朝服, 公服 등의 용어가 병용해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冠帶라는 용어는 通信使 一行의 관복 착용빈도가 가장 많았던 公服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任守幹이 기록한 冠帶와 公服의 용어구별은 당시, 通念的으로 사용되어 오던 用語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儀禮用的 服飾으로서, 일본의 주요도시 즉, 倭京이나 江戸에 입성할 때, 島主와의 宴會 時나 日本國正人 關白을 맞이하여 國書를 전달할 경우에는 公服을 착용하였다. 이때의 公服차림은 關白과의 대면 시에는 물론, 처음 주요도시로 들어가면 먼저 島主나 島主가 보낸 使臣을 접하는 의식이 반드시 있고, 島主가 베푸는 宴會 時에도 儀禮的인 절차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外國使臣과의 의식을 위한 行事

服으로서의 역할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倭京 入城 時, 實相寺에 들어가 公服으로 다시 갈아입었다는 기록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 점이다. 通信使의 公服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복두에 단령의 포, 대, 목화로 구성된 차림을 公服이라고는 하나⁴²⁾, 通信使의 기록에 남겨진 公服의 차림에는 그 구성에 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通信使가 착용하였던 公服 구성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 수가 없으나, 江戸를 출발하여 歸省할 때의 복장이나 또 그림에 公服차림의 예가 없고, 通信使關聯 기록에 常服이라는 표기가 따로 없음을 볼 때, 歸省 時의 복장인 紗帽에 玄綠色의 흉배가 달린 단령의 포를 公服이라 지칭하였을 가능성을 提示하고자 한다. 즉, 문헌기록에는 公服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公服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림에는 常服이 표현되어 있으나, 문헌에는 常服의 기록이 따로 없다는 점, 常服은 통상 짐무를 볼 때 착용하는 의복이나, 國外에서도 常服이 착용되어, 行列圖나 肖像畫에 세밀히 표현되어 있다는 점등으로 보아 당시에는 外國使臣과의 접견 시에도 常服이 通用되고 있었으며, 이것을 公服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모에 흉배가 달린 현녹색 단령의 양식인 常服⁴³⁾, 외국사신과의 접견 시 착용하는 公服의 用度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복식의 用度와는 다른 用度로 착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여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通信使一行이 對馬島 府中으로 들어갈 때에는 朝服을 착용하였는데, 對馬島主의 問安儀式 등이 있었음을 볼 때⁴⁴⁾, 朝服은 儀禮用的 복식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朝服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관에 흉배가 달린 홍색 단령을 기록에는 朝服이라 칭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朝鮮時代에 通用되고 있던 朝服과는 그 구성에 차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원래, 朝服이란 양관 즉, 금관에 赤絹衣와 赤絹囊, 중단, 폐슬, 大帶 등 여러 복식품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⁴⁵⁾, 朝鮮通信使의 경우, 대상 3품 이상이 입

42) 백영자, 한국의 복식문화(서울: 경춘사, 2000), p.205.

43) 유희경, *op. cit.*, pp.322-331.

44) 任守幹, *op. cit.*, pp.168-169.

45) 유희경, *op. cit.*, pp.304-314.

는 홍단령에 흉배가 달린 즉, 상복용의 단령이 외국 사신과의 접견 시 착용되었다. 關白이 齋師를 보내어 朝服과 양관을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⁴⁶⁾으로 보아서도, 이때의 흉배가 달린 홍단령에 양관이 朝服으로 널리 통칭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한, 계급이 다른 三使가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의 사신과 접견할 때의 복제는 국내의 복제와는 다른 양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국내에서도 이러한 복제는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⁴⁷⁾, 외국에서도 通常 착용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1711년의 通信使가 착용한 儀禮服으로는 公服과 朝服으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儀禮用服의 경우, 公服은 주로 주요도시 입성 시나 島主와의 儀式, 宴會, 關白의 접견 시와 같은 경우에 착용되고, 朝服은 國書맞이나 通信使一行이 처음 일본에 도착하여 對馬島 府中에 入城할 때 착용하였다. 이 두 복식의 행사용도에 따라 그 비중을 고려해 보면, 公服은 외국에서의 公的인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착용되었으며, 朝服의 경우는 선별된 행사에만 착용되었음을 볼 때, 朝服이 公服보다 上位의 服으로 취급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에서의 通信使 接待를 위한 宴禮 時의 복장을 보면, 正使이하 모두 公服을 갖추어 입고, 宴禮에 참석을 하였다가, 宴禮 儀式의 하나인 九酌九味が 끝난 후의 私宴에는 三使臣 모두 平服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宴禮 時에도 그 내용에 따라 복식도 엄격히 구별하여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通信使一行이 주요도시로 들어갈 때 平服에서 公服으로 갈아입고 入城하는 경우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通信使一行이 주요도시로의 이동 시 착용하는 旅行服으로는 平服을 착용하였다고 하나, 平服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前例의 平服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⁴⁸⁾, 平服으로는 貂皮 帽子, 등파관과 道袍, 鶴髦衣, 난삼 등이 착용되었음을 볼 때, 조선시대 당시 士大夫가 착용하였던 便服을 通信使의 平服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結 語

本 研究는 朝鮮通信使의 服飾에 관하여 研究한 것으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朝鮮時代 日本에 대한 交隣外交는 禁寇政策의 일환으로 취해진 懷柔政策으로, 禁寇交涉을 위하여 通信使라는 平和的인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선 측의 通信使와 日本使臣들의 왕래는 당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를 다채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友好往來의 역사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朝鮮通信使一行 중 正使, 副使를 포함한 三使臣의 의복차림은, 그 종류별로, 冠帶, 朝服, 公服, 平服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복식은 행사의 용도에 따라 儀禮用, 宴會用, 旅行用 차림으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儀禮用服으로 公服과 朝服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중 公服은 주로 주요도시 入城 時나 島主와의 儀式이 있을 경우에 착용되었고, 朝服은 國書맞이나 對馬島 入城 時 등 중요한 儀禮服으로 착용되고 있었다. 旅程 中에는 旅行用으로서의 平服을 착용하였다가, 大阪이나 倭京과 같은 主要都市에 入城할 때에는 公服으로 다시 갈아입어 조선 측의 대표로서 복식에 대한 예를 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宴禮 時에도 儀禮用과 私宴을 구별하여 儀禮用으로서의 公服과 私宴用으로서의 平服을 달리하여 착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通信使의 외국에서의 朝服과 公服 常服의 용도 및 사용실태에 관하여는, 胸背가 달린 紅圓領에 梁冠을 착용하여 기록에는 朝服이라 칭하고 있음을 볼 때, 朝鮮時代 당시의 朝服과는 그 구성에 차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고, 흉배가 달린 단령에 사모를 착용하여 公服이라고 한 점 등, 다소 혼용하여 착용되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시대 관복의 使用實態와 精確한 使用用度에 대해서는 後續의 研究에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46) 任守幹, *op. cit.*, p. 218 : 10월 8일, 관백이 齋師를 보내어 朝服과 梁冠을 그려 가지고 갔다.

47) 이경자, “嘉禮班次圖, 勳駕의 복식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0집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82).

48) 1748년의 通信使 파견 시에는 평복으로 갓과 도포, 1764년에는 와룡관에 난삼, 1811년에는 등파관, 학상의, 도포 등을 착용하였다.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
『海行總載』
김병하(1969). *이조전기대일무역연구*. 서울: 선일인쇄사.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민문庫.
中村榮孝(1982).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 조선통신사. 金龍鮮 譯, 서울: 東湖書.
민족문화추진회(1998). *增正交隣志* 서울: 코리아헤럴드.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89). *부산시사*. 부산: 부산직할시.
백영자(2000).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世宗大王記念事業會(1998). *通文館志 I*. 서울: 신흥인쇄사.
유희경(1981). *한국복식사*.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이경자(1982). “嘉禮班次圖, 勳駕의 복식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0.
이경식(1987). 16세기 시장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서울: 한국사연구회.
이현종(1964). *조선전기 대일 교섭사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한문중(1996).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編(2001). *こころの交流 朝鮮通信使*, 京都: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
朝日新聞社文化企劃局(1992). *宗家記録と朝鮮通信使展*, 東京: 朝日新聞社.